훈데르트바써 주택작품의 외부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External Appearances of Hundertwasser's Housing Projects

김 대 년*
Kim, Dae-Ny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external appearances of Hundertwasser's housing projects through both literature review and field study, and to understand how Hundertwasser's architecture philosophy was embodied in the design of external appearances so such projects.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are: Hundertwasser House; In the Meadow Bad Soden; The Forest Spiral Darmstadt; and The Green Citadel Magdeburg.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The fundamental architecture philosophy of Hundertwasser is the close linkage between mankind and nature. He has proven, through his four housing projects mentioned above, that it is possible to build houses without destroying and in harmony with nature. Hundertwasser had identified vitality, irregularity and diversity as being the source of beauty of nature. Using the human creativity, he had embodied such elements into his housing projects, thus suggesting an ideal housing environment whereby humanity is respected. Hundertwasser made use of organic curved line and spiral shapes that exist in nature when designing his housing projects. His creativity was articulated through vitality, diversity, and irregularity in colour schemes and a wide range of form. Indeed, he was an architect pursuing the underlying nature of both human and nature. The current living environment in Korea can be characterized as being standardized and desolate, which is a result of housing projects being focused too much on functionalism. Through its analysis of Hundertwasser's housing projects, one of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a new design paradigm being called for today, including for housing projects to be more ecological and environmental-friendly. By motivating architects and appealing to their clients, this study hopes to motivate those involved in various housing projects to think progressively. Such an attitude change could assist in transforming and thus enhancing the overall living environment in Korea.

Keywords : Hundertwasser, Housing Projects, Design Characteristics of External Appearances

주 요 어 : 훈데르트바써, 주택작품, 외부 디자인 특성, 건축철학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자연으로의 회귀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바랐던 화가, 디자이너, 건축가였던 훈데르트바써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으로 자연과 인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훈데르트바써는 건축물, 특히 주택에 관심이 많아 그림, 그래픽, 러그(rug), 우표 등에 주택을 자주 등장시켰다. 1977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의 의뢰로 시작한 임대집합주택은 훈데르트바써의 첫 건축작업이었는데 이 주

택이 완공된 1986년부터 건축가로서 세계적 주목¹⁾을 받았으며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 이스라엘, 미국 등에서 활발한 건축활동을 했다.

유토피아에 대한 갈망을 자연과 인간의 조화, 인간 존중, 동화적 세계로 건축물에 표현한 훈데르트바써는 주택, 주거단지, 온천마을, 교회, 미술관, 학교, 데이케어센터, 쓰레기 소각장, 공공화장실, 공장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작업내용²⁾도 신축,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리디자인(redesign), 파사드/창 디자인 등 그 범위가 넓었다<Table 1>. 정규 건축교육을 받지 않았던 훈데르트바써의 건축작업에서 도면제작 또는 건축구조문제의 조력자는 펠리칸(Pelican P.)³⁾이었는데, 많은 작업에서 훌륭한 파트너 역할을 하였다.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서원대학교 조형환경학부 건축학과 교수, 박사

Corresponding Author: Dae-Nyun Kim, Dept. of Architecture, Seowon Univ., 241 Musimseoro, Heungdukgu, Cheongju, 361-742, Chungbuk, Korea
E-mail: dnyun@seowon.ac.kr

이 논문은 서원대학교의 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1) 훈데르트바써는 건축공모전에 참여한 적이 없었으며, 그의 작품을 보고 건축주들이 작업을 의뢰하여 진행되었다(Schmied, W., 2000). 훈데르트바써재단의 전문연구원, Fürst에 의하면, Thermal Village Blumau도 훈데르트바써 하우스 완공식에 참여했던 로그너(Rogner R.)가 의뢰한 프로젝트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Hundertwasser's Project

Classification**	Examples of the Project
Architectural project (new building)	* Hundertwasser House
	* Thermal Village Blumau
	* In the Meadows Bad Soden
	* 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
	*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
	* Kids Plaza Osaka
Architectural redesign	* The Rainbow Spiral of Valkenburg an der Geul
	* District Heating Plant Spittelau
	* Martin Luther Gymnasium Wittenberg
	* Living Beneath the Rain Tower
Rebuilding	* Maisima Sludge Center
	* KunstHausWien
Redesign & renovation	* Church of St. Barbara
	* Village of the Hundertwasser House
Redesign	* Motorway Restaurant Bad Fischau
	* Cancer Ward Graz
	* Kawakawa Public Toilet
	* 'MOP' Maisima Incineration Plant
Facade design	* Rueff Textile Factory
	* Vienna District Heating Plant Office Building

**Taschen A. (Eds.). (2009) pp. 303-309

건축가 훈데르트바서에 대한 사회분위기는 열광적이었으나⁴⁾, 기능주의가 지배적이었던 당시 사회의 모더니스트 건축가들은 훈데르트바서의 유토피아적 이상을 비현실적이고 유아적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훈데르트바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무시하고 직선, 무채색이 반복된 획일적 도시건축물을 양산하여 비인간적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낭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건축가를 비판하고 건축의사(architecture doctor)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⁵⁾. 그에 의하면, 삭막한 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의사는 건축물의 외관이나 파사드를 새롭게 디자인할 의무가 있다.

2) 훈데르트바서의 건축작업에는 Pelican, P., Springman, H. M., Fuchsichler, M.이 도면제작, 구조분야의 조력자로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데르트바서의 작품이라고 공인하는 이유는 건축적 아이디어, 컨셉, 설계는 물론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훈데르트바서가 책임자로 활동하고 다른 사람은 조력자로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엔나 시장이 훈데르트바서에 입대집합주택을 의뢰하면서 추천한 크라비나(Krawina J.)와의 역할분담에서 정리되었다. 건축가 크라비나는 건축은 자신이 담당하고 훈데르트바서는 옥상정원, 외벽 등의 artist 역할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러한 역할분담에 훈데르트바서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크라비나는 즉시 교체되고 펠리칸이 추천되었다.

3) 1941년 10월 29일 오스트리아 펠텐(Pölsen)에서 출생한 펠리칸은 1972년부터 비엔나시청의 도시설계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77년 입대집합주택 프로젝트부터 훈데르트바서의 건축작업의 조력자 역할을 시작했다. 그 후 많은 작품의 조력자로 활동하였는데 펠리칸의 애칭인 '핀프치히바서(Fünfzigwasser; 훈데르트바서의 hundred는 100을, 핀프치히바서의 fünfzig는 50을 의미함)'에서 이들의 우호적 관계를 알 수 있다(Schediwy, 1999).

4) 파리, 밀라노, 런던, 제네바, 산타 바바라, 휴스턴, 시카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도쿄, 멜버른, 캔버라, 시드니 등에서 전시회, TV 출연, 초청연설을 했으며, 뮌헨올림픽 포스터, 유엔본부와 독일 우표의 디자인을 맡았다.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Hundertwasser Week'가 제정되는 등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Schrom, V., 2003).

훈데르트바서는 자신의 이상(理想)인 '자연과의 조화(harmony with nature; a peace treaty with nature)'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자연이 지닌 아름다움의 원천인 다양성, 불규칙성, 생명력을 건축물에 구체화시킨 건축가이다(Schmied, W.⁶⁾, 2000). 이러한 건축가로 스페인의 가우디(Gaudi, 1884-1926)⁷⁾를 들 수 있으나 가우디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재창조하여 건물의 형태, 색채, 무늬 등 건축 디자인의 요소로 활용한데 비해서(Kim, D. N., 2004), 훈데르트바서는 자연 그 자체를 건축물에 도입시켰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훈데르트바서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일본 등의 학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주제가 다양하고, 연구자의 전공이나 게재학술지⁸⁾의 범위가 대단히 넓으며, 연구대상이 훈데르트바서 하우스로 편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연구가 매우 적으며 문헌에 주로 의존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헌고찰과 현장답사를 통한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훈데르트바서 주택작품의 외부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고, 그의 건축철학이 주택작품에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Ecological Housing', 'Environmental Friendly Housing', '거주자의 개성이 표현된 주택'은 바람직한 주거대안으로 당연시되고 있으나 제대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부터 이미 위와 같은 패러다임으로 건축된 훈데르트바서의 주택작품을 분석하는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이들 주택작품이 피상적 건축물로서 뿐 아니라, 그 근간에 자리 잡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주택, 지속가능한 주택'이라는 건축철학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주거환경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5) 삭막한 도시재개발에 건축의사가 참여해야 한다. 나는 열악한 환경일수록 일할 의욕이 생긴다. 사람들이 기피했던 쓰레기소각장인 District Heating Plant Spittelau가 비엔나 시의 아름다운 상징물이 된 것이 좋은 예이다. 건축의사로 활동한 작품은 쓰레기소각장 외에 Rosental Factory, Selb (1980-1982), Church of St. Barbara (1984-1988), Motorway Restaurant Bad Fischau (1989-1990), Kunst Haus Wien (1989-1991), Martin Luther Gymnasium, Wittenberg (1993-1999), Kawakawa Public Toilet (1997-1999) 등이 있다.

6) 192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생으로, 법학박사학위 취득 후 미술사를 전공하여 예술비평가로 활약하였다. 전시회주관, 예술비평, 훈데르트바서 작품집출판 등을 했으며, 뮌헨 예술아카데미 교수, 바바리안 예술아카데미 총장 등을 역임했다.

7) 훈데르트바서는 가우디를 초현실주의 건축가, 천재건축가로 칭송하였으며(Schmied, 2009), 화가 반 고흐(Van Gogh), 쉼메(Shiel), 클림트(Klimt), 클레(Klee)를 좋아하였다.

8) 게재 학술지는 Housing & Studies, Environment & Planning, Society and Space, Cultural Geographies, Human Geography, Theory & Society 등이며, 전공은 건축학, 실내디자인, 미학, 심리학, 철학, 지리학, 사회학, 도시학 등이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함께 현장답사를 통한 사례연구가 병행되었다. 문헌고찰에서는 훈데르트바쎄의 성장배경과 삶, 축적된 삶의 결과인 건축철학을 연구하였다. 현장답사 건축물의 선정은 문헌고찰을 기본으로, 연구의 질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훈데르트바쎄 연구재단’의 Fürst⁹⁾의 조언을 받았다. 현장답사¹⁰⁾를 실시한 건축물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4개 주택작품을 포함하여 총 16개이며,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에 소재한다. 주택작품의 외부 디자인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현장답사는 체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외부 구성요소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훈데르트바쎄의 주택작품 4개를 대상으로 외부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훈데르트바쎄의 건축철학이 주택 외부에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범위를 주택작품의 외부 디자인으로 제한한 이유는 두 가지로, 첫째는 훈데르트바쎄 자신이 건축물 외부 디자인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실제로 외벽, 창, 파사드, 기둥, 테라스, 옥상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며, 둘째는 답사대상 주택의 실내를 조사,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¹¹⁾이다.

II. 훈데르트바쎄의 성장배경과 삶

훈데르트바쎄는 아리아계 오스트리아인 아버지와 유대계 체코인 어머니의 유일한 혈육으로 1928년 12월 1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났으며 원래의 이름은 Friedrich Stowasser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여러 번 바꾸었는데 100을 의미하는 슬라브어 ‘sto’를 독일어 ‘hundert’로 바꾸어 Hundertwasser로 하고, Friedrich를 Friederich(1961년), Friedereich(1968년), Friedensreich(1969년)로 변경하였는데, Friedensreich Hundertwasser¹²⁾를 주로 사용하였다.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1929년, 훈데르트바쎄가 1살 때 사망하여 어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으며,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정책¹³⁾으로 1943년에 외가 친척 69명이 희생되었다. 어린 시절의 이러한 환경은 훈데르트바쎄의 성격이나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¹⁴⁾.

9) Hundertwasser Non Profit Foundation, Vienna(이사장 Harel J.)의 전문연구원이며, 2010.12.5부터 2011.3.15까지 한국 서울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에서 개최된 ‘훈데르트바쎄 전시회’의 총괄책임자를 역임하였다.

10) 현장답사 기간은 2010.9.3 - 2011.1.20이다.

11) 거주인의 사생활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방문객에게 주택 내부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본 연구자는 임차인(Kraus A.)의 초대로 Hundertwasser House의 내부를 2회 답사했으나, 이는 연구목적이라든가 극히 예외적이라고 한다.

12) 비오는 날(Regentag)의 짙고 선명한 색(Dunkelbunt)을 좋아했던 훈데르트바쎄는 이름에 Regentag, Dunkelbunt를 추가하기도 했다.

13) ‘유대인의 세계정복’이라는 음모론에 집착한 히틀러는 배타적·선동적 게르만 민족주의로, 1935년에 ‘뉘른베르크법’을 통과시키면서 유대인 말살정책을 추진했으며, 1939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조선일보 2013.2.1. A16).

훈데르트바쎄는 제도화된 정규교육을 받은 기간이 매우 짧다. 1936년 1년간의 비엔나 몬테소리 스쿨, 1948년 고등학교 졸업, 고교 졸업 후 다녔던 비엔나 미술아카데미 3개월이 전부이다¹⁵⁾(Schmied, 2009).

평생을 끊임없이 여행하였던 훈데르트바쎄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림작업을 하고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1952년 비엔나를 시작으로 파리, 밀라노, 상파울로 등에서 전시회를 열었으며, 1961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미술전¹⁶⁾에서 마이니치(毎日)상을 수상하였다. 이어서 도쿄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미로, 사갈과 함께 색의 3대 미술사라는 칭송을 듣게 되었고 화가로서의 입지와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훈데르트바쎄는 1950년대부터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58년 세카우(Sekau) 수도원에서 열린 건축가 회의에서 ‘합리주의 건축에 대한 반대 성명’이라는 연설을 시작으로, 건축과 환경에 대한 각종 퍼포먼스, 향의, 성명, 선언, 표현수단으로서의 건축작업, 장치에 의한 환경실험 등을 하였다(Harel, J., 2005). 1972년 TV Show (Eurovision Wönsch Dir)에서 제시한 주택모형에는 훈데르트바쎄의 주택에 대한 이상인 옥상정원, 입주목, 창문권 등이 표현되어 있었으며¹⁷⁾, 이를 계기로 소용돌이(spiral) 하우스¹⁸⁾, 테라스 하우스, 아이슬릿(eye-slit) 하우스 모형을 제작하였다.

1980년대 건축의사로서 로젠탈 공장, 미에르카 곡물창고를 리디자인(redesign)하면서도 훈데르트바쎄는 자신을 건축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건축작업을 시작한 것은 자신의 건축의도를 강연¹⁹⁾, 선언, 퍼포먼스 등으로 발표해도 갈채만 보낼 뿐 건축가들이 채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이다. 훈데르트바쎄는 건축주의 이해 부족, 비용 및 시간문제, 건축법규의 제약, 시공전문 기술자의 부족 등을 핑계로 대는 건축가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합리주의, 기능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중심에서 벗어나 낭만이 사라진 현대 도시의 건축물을 살려내려면 도시계획가, 건축가, 엔지니어

14) 훈데르트바쎄는 어린 시절 독일군, 경찰(Gestapo)에게 잡혀가는 유대인 친척을 많이 보았고 후에 처형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의 주택작품에는 잔디지붕(roof-forest)이 많은데, 이는 안전한 피난처에 대한 바람이 표출된 것이며, 주택 외벽에 붉은 피색, ‘홀러내리는 피’ 같은 장식 등도 불우했던 경험과 관계가 크다(Schmied, W., 2009).

15) 1950년 the Paris Ecole des Beaux-Arts에 입학한 다음날, 배울 것이 없다고 바로 자퇴하였다.

16) 6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17) 훈데르트바쎄 하우스를 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8) 1972년, 옥상정원이 있는 주택, 소용돌이 다각주주택의 모형(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라는 이름으로 2000년 완공됨)을 제시하였고, 1973년, 아파트의 창에 나무 15그루를 심는(tree-tenant) 해프닝을 하였다(Schmied, W., 2009).

19) 1982년 12월, San Francisco Skidmore에서의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그리고 1983년 4월, London에서 열린 Architectural Association에서의 강연을 말한다.

어, 경제학자, 정치가 등 전문가들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Kreisky, B., 1977). 이와 같은 협업과정을 거쳐 현실화된 첫 작품이 비엔나의 훈데르트바써 하우스이다. 1977년 비엔나 시장의 요청으로 시작되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1986년에 완공된 훈데르트바써 하우스는 그의 건축적 이상인 옥상정원, 테라스정원, 입주목, 평평하지 않은 바닥, 불규칙한 기둥과 창문, 창문권, 상징성을 위한 장식물 등이 구체화된 주택이다. 그 후 훈데르트바써의 건축작업은 지속되었는데 대표적인 작업을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Hundertwasser's Architectural Projects

Name of Projects (Year of Completion)
㉑ Church of St. Barbara (1988)
㉒ Motorway Restaurant Bad Fischau (1990)
㉓ KunstHausWien (1991)
㉔ Village of Hunderteasser House (1991)
㉕ District Heating Plant Spittelau (1992)
㉖ In the Meadows Bad Soden (1993)
㉗ Living Beneath the Rain Tower (1994)
㉘ Children's Daycare Center Hedderheim (1995)
㉙ District Heating Plant Office Building (1997)
㉚ Thermal Village Blumau-Rolling Hills (1997)
㉛ Kids Plaza Osaka (1997)
㉜ Martin-Luther Gymnasium Wittenberg (1999)
㉝ Kawakawa Public Toilet (1999)
㉞ Ronald McDonald House, Essen (2000)
㉟ 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 (2000)
㊱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 (2005)
㊲ Ronald McDonald House, Essen (2005)
㊳ The Rainbow Spiral of Valkenburg an der Geul (2007)

Preliminary discussion of ㉑ initiated in 1996 and ㉒ in 1988. The New Zealand Spiral Monument(by Hundertwasser) in 1988 was a model of ㉔.

화가로서의 삶을 먼저 시작했던 훈데르트바써는 건축가로서 세계적 인정을 받으면서 왕성한 활동²⁰⁾을 하였으나 2000년 2월 19일, 71세에 태평양 횡단 크루즈 여행을 하던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그는 뉴질랜드에 소재한 자신의 정원에 있는 튜립나무 아래에 평소에 원하던 대로 자연과 더불어 잠들어 있다²¹⁾.

20) 그의 사망 당시에 완성단계의 프로젝트는 The Waste-incinerator Plant in Osaka(일본), 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독일) 등이 있었고 공사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4개, 설계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5개 있었다.

21) 훈데르트바써는 '녹의 증식' 수단으로 '무덤에 나무심기운동'을 주장하여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소유지에서의 매장허가를 받아냈다. 죽은 자는 지하의 밀폐된 관으로 인해 하늘과 땅에서 격리되고 나무들은 뿌리를 뻗을 수 없으므로, 관 없이 매장하고 나무를 심어 죽은 자가 자연과 함께 하도록 하자는 초현세적 관념을 확산시키고자 했다.

III. 훈데르트바써의 건축철학

훈데르트바써의 건축목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인간에게 적합한 거주환경의 조성'이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할 때 우리 자신이 파괴된다고 주장하는 훈데르트바써 건축철학의 기본가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맺기(the close link between mankind and nature)'이다. 그에 의하면, 이상적인 건축물은 개별적 존재인 인간의 독창성,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라는 두 요소가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Schmied, W., 2009). 그의 건축철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신의 피조물인 인간은 독창적 활동을 통해서 개성(individuality)과 다양성(diversity)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자연과 관계 맺기'를 통해서 살려야 한다. 자연의 손님인 인간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자연에게서 빼앗은 땅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옥상에 흙을 올리고 풀과 나무를 심어 자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녹(綠)의 의무 선언', '옥상과 테라스 녹화 운동', '입주목(tree tenants)²²⁾운동' <Figure 1>을 전개해야 한다.

Figure 1. Tree-tenants of Hundertwasser House

2. 자연이 지닌 아름다움의 근원은 생명력(vitality)이다. 이러한 자연의 생명력은 불규칙성(irregularities)과 다양성(diversity)에 기인한다. '서로 다름²³⁾은 풍요와 아름다움의 동의어'이고, '모두 같음'은 자연에 대한 죄악이다. 따라서 합리주의, 획일화에 맞서야 한다. 훈데르트바써는 생명력을 지닌 불규칙성과 다양성²⁴⁾을 통해서 일탈을 시도²⁵⁾ <Figure 2>하였다.

22) 입주목은 '입주인'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외벽 쪽의 1-4 m²의 발코니에 나무를 심어 외부로 뻗게 하자는 것으로 그의 모든 주택작품에 실현시켰다. 도로는 설비로 인해 나무기르기에 장애가 많고, 옥상녹화는 건축구조상 불가능할 수 있어 도로에서 잘 보이는 입주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3) 훈데르트바써 하우스의 52세대는 면적, 전망, 층수, 일조량, 테라스 정원 등의 조건에서 같은 것이 전혀 없는데 훈데르트바써는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24) 건축물 외관에 같은 디자인의 창이 가로, 세로로 반복되는 것은 입주자의 존엄성과 아이덴티티를 무시하는 것이다. 입주자가 각각 다르듯이 창도 다양해야 한다.

Figure 2. Various Window Designs in Color, Position, Form and Size of 'In the Meadow Bad Soden'

3. 색채는 건축물에 생명을 부여하고²⁶⁾ 아름다움을 승화시킨다. 인간이 풍요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낙원(paradise, utopia)을 동경하는 것은 천차만별한 색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모더니스트 건축가들의 획일적인 무채색, 동일색의 건축물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킨다. 훈데르트바써는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여 암울한 회색의 도시를 동화적 세계, 파라다이스로 변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많은 작품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4. 아름다움의 근원인 자연에서 발견되는 연속성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곡선에 의한 것이다. 직선은 자연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그래서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낯설다. 직선의 반복은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부정적인 자극으로 작용한다²⁷⁾. 이에 반해서, 유기체적인 곡선은 삶과 죽음, 생명의 잉태를 상징하며 자연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소용돌이(spiral)는 그 자체로 인간의 운명²⁸⁾, 우주설리를 상징하며, 소용돌이에서 태어나 소용돌이로 돌아가는 인간에게 친숙한 느낌을 준다. 훈데르트바써의 작품에는 직선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연속적인 곡선과 소용돌이가 건축물의 매스²⁹⁾, 외벽, 돔, 기둥, 창에 자주 등장한다.

5. 생명이 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건축물도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해야 한다. '제3의 피부³⁰⁾'인 건축

물 외벽도 세월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이는 입주자의 아이덴티티를 창 주변의 외벽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창문권(window right)'을 보장하면 실현된다. 창은 외부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인간의 눈에 해당하며, 동시에 건축물이 살아서 호흡할 수 있게 하는 숨구멍이다. 창은 건축물 외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임대주택에서는 입주자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 구성 요소이므로 창문권은 매우 중요하다<Figure 3>.

Figure 3. Hundertwasser House - the First House with Window Right

6. 주택건축물에는 입주자의 신분상승을 상징하는 장식물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상징성 있는 장식물에는 탑(tower), 양파돔(onion dome)³¹⁾, 구(sphere), 여인상, 사자상, 기둥 등이 있다. 탑과 양파돔은 약속의 땅, 성지, 파라다이스를 상징하며, 행복, 낙원, 부귀를 상징하는 여인상, 사자상 등은 입주자 자신을 풍요롭게 한다. 기둥은 건축물의 구조상 필요한 요소이지만 기대거나 옆에서 있을 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나무이어야 한다. 기둥은 자연에 존재하는 나무를 상징하므로 기둥의 모양, 색채 등은 각기 달라야 한다.

IV. 훈데르트바써의 주택작품과 외부 디자인 특성

본 장에서는 훈데르트바써 주택작품의 개요와 함께 현장답사를 통해서 본 4개 주택의 외부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고, 훈데르트바써의 건축철학이 이들 주택작품에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³²⁾. 외부 디자인의 특성은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외부 구성요소인 매스(mass), 외벽/파사드(facade), 창, 기둥, 테라스/옥상, 양파돔/구(sphere)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30) 그에 의하면, 인간의 피부는 '제1의 피부', 의복은 '제2의 피부', 건축물의 외벽은 '제3의 피부'이다.

31)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4 주택에는 모두 양파돔이 있다.

32) '비평가의 개인적 체험을 명료화하는 비평은 주관적인 측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한 판단과 체험의 근거를 제시하여 그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성 요구된다.'는 이범재(1989)의 건축비평론을 염두에 두고 객관적 상황분석과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25) 색채만으로도 유토피아를 연상시키는 그의 작품으로 Hundertwasser House, Church of St. Barbara, District Heating Plant Spittelau, In the Meadow Bad Soden, Thermal Village Blumau를 들 수 있다.

26) '색채는 건축물의 형태를 명확하게 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죽음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색채가 없는 것이다.'고 주장한 가우디의 건축철학과 일맥상통한다(Kim, D. N. 2004, p 28).

27) 건축물에 사용된 직선은 개성이 없고 창조적이지 못하며, 생태학적인 의미에서 인간을 병들게 하고 환경을 황폐화시킨다(출처: 1958년 Sekau의 'Mouldiness Manifesto Against Rationalism in Architecture').

28) 어린 시절 경험한 아버지 사망, 히틀러에 의한 많은 친척들의 처형과 관련되며, 동양의 윤회론과 일치한다.

29) 건축물의 매스(mass)가 소용돌이 형태로 된 그의 작품은 Thermal Village Blumau(오스트리아), 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독일),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독일), Rainbow Spiral of Valkenburg(네덜란드) 등이 있다.

4개 주택은 ‘훈데르트바써 하우스(Hundertwasser House)’, ‘인 더 메도우 배드 소덴(In the Meadow Bad Soden)’, ‘더 포레스트 스파이럴 어브 담스타트(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 ‘그린 시타델 어브 마그테부르크(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로서, 이들 주택의 개요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3. Housing Projects of Hundertwasser

Project's Name (Duration)	Overview
Hundertwasser House ³³⁾ (1977-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tion: Kegelgasse 36-38, 1030 Vienna, Austria * Composition: 52flats/8types (40-150), 2children's playrooms, doctor's practice, restaurant, 19green terraces, 37parking spaces * Site size: 1,273 m² * Built area; 1,092 m² * Total living space: 3,557 m² * Additional usable area: 1,673 m² * Client: City of Vienna
In the Meadows Bad Soden ³⁴⁾ (1990-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tion: Quellenpark 38, 65812 Bad Soden/Taunus, Germany * Composition: 17flats/individual floor plans (120-234 m²), 22greenterraces, garages * Structural space: 25,000m³ * Client: Dipl.-Ing Wolfgang Wachendorff, Bad Soden
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 ³⁵⁾ (1995-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tion: Bürgerparkviertel, 64293 Darmstadt, Germany * Composition: 105flats * Building size: 6,600 m² * Built area; 8,800 m² * Building volumn: 30,000 m³ * Client: Bauverein Darmstadt AG, Darmstadt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 ³⁶⁾ (1996-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tion: Breiter Weg 8-10, 39104 Magdeburg, Germany * Composition: 55flats, exhibition space, restaurant, offices, shops, kindergarten, hotel * Client: Centum Aqua Immobilien GmbH and Co. RQ, Magdeburg

1. Hundertwasser House(훈데르트바써 하우스)

1) Hundertwasser House의 개요

Hundertwasser House는 1977년 비엔나 시장이 훈데르트바써에게 유토피아적인 시영임대집합주택을 의뢰하면서 시작된 프로젝트로서, 시의회의 논란을 거친 후 1983년에 시작되어 1986년에 완공되었으며 환경건축작품 제1호로 지정되었다. 건축계획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에 훈데르트바써가 직접 참여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창문권이 명시된 최초의 주택이며, 입주 후 퇴거한 임차인이 거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33) Residential Building of the City of Vienna로도 지칭되며, Pelikan(건축도면)과 Schmid(모형제작)가 조력자이었다.

34) 독일 명칭은 In den Wissen Bad Soden이며, Pelikan(건축도면)과 Schmid(모형제작)가 조력자로 참여하였다.

35) 독일 명칭은 Die Wald-spirale von Darmstadt이며, Springmann(건축도면)과 Bodi(모형제작)가 조력자이었다.

36) 독일 명칭은 Die Gruene Zitadelle von Magdeburg이고, Pelikan과 Springmann(건축도면), Bodi(모형제작)가 조력자로 참여하였다.

비엔나 시내에 소재하는 Hundertwasser House는 연면적이 5,230 m² ³⁷⁾이고 52세대가 거주한다. 세대별 규모는 40-150 m²로 매우 다양하고 8가지 유형의 단위평면에 층수는 1층과 2층의 2종류가 있다. 부속공간으로 어린이 놀이공간, 온실, 테라스, 세탁실, 선룸, 자전거/유모차 보관소, 주차장, 창고, 카페, 의원이 있다.

2) Hundertwasser House의 외부 디자인 특성

(1) 매스(mass)

현장답사 결과, Hundertwasser House의 매스는 옥상과 테라스에서 자라고 있는 수백 그루의 나무와 외벽으로 뻗어나온 여러 개의 입주목이 파스텔톤의 건물 외벽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예술작품으로 보인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나무)의 색은 이 주택을 생물체로 보이게 하여 <Figure 4>, 건축물도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훈데르트바써의 건축철학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주택의 매스는 옥상과 테라스 녹화운동, 입주목운동을 통해서 ‘자연과의 관계맺기’를 주장하는 훈데르트바써의 건축철학이 구체화된 모습을 지녔다고 판단된다.

Figure 4. Hundertwasser House with Tree-covered Roof and Terraces

(2) 외벽/파사드(facade)

Hundertwasser House는 동화 속의 집으로 표현된다. 이는 세대별 파사드가 각각 다르며, 이와 같이 차별화된 다양한 파사드들이 모여 전체 외벽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벽은 파스텔톤으로 처리된 빨강, 파랑, 노랑, 하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대별 파사드의 경계는 유기체적인 곡선이어서 동일한 파사드가 반복되는 일이 없다. 경계표시를 위한 작은 타일은 짙은 회색이지만 색을 덧칠함으로써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어린이 놀이공간, 계단실, 온실(winter garden), 카페의 파사드는 무채색인 회색이어서 유채색인 세대별 파사드가 더욱 돋보인다. 이 주택의 외벽은 풍요와 행복이 있는 낙원과 동화적

37) 거주면적 3,557 m², 부속공간면적 1,673 m²을 합한 것이다.

세계는 천차만별한 많은 색채로 이루어져있다는 훈데르트바써의 건축철학이 차원높게 실현된 사례로 평가된다.

출입용 현관이 양쪽에 있는 이 주택은 중앙에 open space가 있으며 천장이 굴곡져 있는데 이는 상부에 있는 어린이 놀이공간의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둥글기 때문이다<Figure 5>. 파사드 앞의 연못과 주변공간의 도로도 바닥이 파도형 기복으로 이루어져 있다³⁸⁾. 이러한 디자인은, 직선의 반복은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주므로 생명의 잉태를 상징하는 유기체적 곡선으로 친숙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는 훈데르트바써의 건축철학이 반영된 사례이다. 또 발코니의 입주목은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고 주택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는 건축철학이 구체화된 사례라고 평가된다.

Figure 5. Open Space with Curved Ceiling under the Children's Playroom of Hundertwasser House

(3) 창

이 주택의 창 디자인은 각기 다르다. 가로, 세로가 다른 8종류의 창틀에, 창틀의 위치와 배열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이 전혀 없다. 창틀색은 빨강, 파랑, 까맣, 갈색의 4가지이며 창틀의 캡스톤(capstone)의 색 또한 다양하다. 또 최초로 창문권이 주어진 이 주택에는 창틀의 주변이 자유롭게 칠해져있어서 그 많은 창틀들이 각각 다르다. 이 주택의 창틀들은 ‘각기 다름’에 대하여 프라이드를 느끼는 인격체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는 자연의 생명력은 불규칙성과 다양성에 기인한다는 훈데르트바써의 철학, 불규칙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연이 아름답다는 철학이 건축물에 구체화된 예라고 판단된다. 또 색채는 건축물에 생명을 부여하며 낙원은 다양한 색채로 이루어져 있어 풍요롭고 행복하다는 그의 건축철학에 동의하게 하는 주택이다.

(4) 기둥(columns)

Hundertwasser House는 거리에 면한 쪽의 발코니를 여러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다. 기둥의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세라믹 타일인데, 다양한 색과 형태를 지닌

이 세라믹 타일³⁹⁾은 의도적인 기복이나 규칙성은 있지만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또 각각의 기둥은 색채와 형태가 다른 세라믹과 벽돌 등이 이용되어 디자인이 같은 게 없다<Figure 6>. 이들 기둥은 자연의 아름다움은 ‘서로 다름’에 기인하는데, 건축물도 획일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훈데르트바써의 건축철학의 구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Figure 6. Various Column Designs in Form, Color and Size of Hundertwasser House

(5) 테라스/옥상

이 주택은 테라스와 옥상에 수백 그루의 나무를 심어 훈데르트바써가 주장하는 ‘옥상/테라스 녹화운동’을 구체화시켜 놓았다. 여러 개의 테라스를 계단형으로 계획하고 수종이 다른 나무를 심어 자연에 존재하는 동산으로 보이며, 사람들이 언덕 밑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수종의 다양화도 자연의 불규칙성을 주택에 도입하려는 건축철학에서 나온 것이라 사료된다.

(6) 양파돔/구(sphere)/사자상/여인상

현장에서 본 Hundertwasser House는 임대주택이지만 왕궁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보인다.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양파돔, 사자상, 여인상, 구 등의 장식물<Figure 7>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권력

Figure 7. Various Ornaments of Hundertwasser House

38) 인간이 평평한 바닥만 걸으면 평형 감각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바닥이 울퉁불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9) Ceramic tile은 400년 역사의 에빈가(독일 Bad Emus)에서 수공작업으로 만들었는데, 서리에 강하고 타격에도 강하며 독특한 표면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훈데르트바써는 이 Ceramic tile을 연구대상이 모든 주택에 사용하였다.

/새력이 있는 사람, 취미가 고상한 사람들이 즐겼던 이런 장식물을 임대주택의 여기저기에 배치함으로써 입주자를 행복하게 하고 신분이 상승되는 느낌을 갖게 했다고 판단된다.

2. In the Meadow Bad Soden(인 더 메도우 배드 소덴)

1) In the Meadow Bad Soden의 개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외곽의 Bad Soden에 위치한 이 주택은 17세대가 거주하는 소규모 집합주택이며 세대별 규모는 120-234m²로 큰 편이다. 타우누스산을 배경으로 하는 온천지역의 쿠베렌마크 공원과 빌헬름 공원에 둘러싸여 동화 속의 작은 성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Figure 8>. 대지조성 작업부터 광천의 수맥을 보호하는 Kua Haus⁴⁰⁾의 수리작업으로 공사가 복잡했다고 한다. 이 주택은 Hundertwasser House와 같은 집을 Bad Soden에 짓고자 했던 Wachendorff의 야망이 이루어진 것으로, 규모도 비슷하며 외벽마감이 벽돌 위 플라스틱 마감인 것도 같다. 이 주택의 특징은 세대수보다 많은, 형태와 크기가 다른 테라스 또는 옥상정원(주택 10m²당 4m²)이 있으며, 고급주택이고 주차공간이 지하에 있어 주택 전체가 푸른 녹색으로 덮여있다는 것이다.

Figure 8. External Appearance of 'In the Meadow Bad Soden'

2) In the Meadow Bad Soden 외부 디자인 특성

(1) 매스(mass)

이 주택의 매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사진보다 <Figure 9>⁴¹⁾에 제시된 모형이 더 적합하다. In the Meadow Bad Soden은 작은 성채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소규모 집합주택이지만 세대별 주택의 높이와 형태를 다르게 하고 평면유형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망루같이 보이는 타워는 여러 층을 사용하는 세대의 주택이다.

(2) 외벽/파사드(facade)

현장답사 결과, 외벽과 파사드는 Hundertwasser House와 많이 다르다. 그 이유는 조용한 온천마을이고, 부유한

단독주택 지역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점잖고 고급한 느낌으로 디자인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Hundertwasser House와는 달리 건물 전체의 배경색을 부드러운 베이지색으로 통일하였으며, 외벽에는 옥상 또는 창에서 대량의 물을 쏟아 부은 듯한 수직 방향의 유기체적인 굽은 띠(band)가 단위세대별로 각기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다<Figure 10>. 이는 자연이 지닌 다양성과 불규칙성을 표현하기 위한 훈데르트바씨의 건축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밖에도 건물 상부에 이용된 벽돌의 색이나 조적방법 등으로 다양성을 시도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Figure 9. Architecture Model of 'In the Meadow Bad Soden'

Figure 10. Various Exterior Designs in Vertical Band of 'In the Meadow Bad Soden'

(3) 창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창들이 각기 다르게 배열된 In the Meadow Bad Soden의 외벽은 주변 녹색의 숲과 어울리면서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창에 대한 기본 컨셉과 표현방법은 Hundertwasser House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장답사 결과, 그 이유는 높이가 각기 다른 여러 개의 타워, 타워를 받치고 있는 다양한 기둥들이 시선을 분산시키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40) 1722년에 만들어진 수리작업시설

41) 출처; Taschen A. (Eds.), 2009 p218

(4) 기둥(columns)

이 주택에는 기둥이 중요한 요소로 이용되며 그 수도 많다. 단위세대별로 각기 달리 디자인된,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형태를 지닌 기둥들이 단지 내 통로, 세대별 현관과 계단에 배치되어 있고, 테라스정원이나 옥상정원에도 배치되어 있다<Figure 11>. 기둥들은 세대별 주택과 각 현관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데, 이들 기둥의 화려함이 돋보이는 것은 건물 전체의 색이 베이지색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Figure 11. Various Column Designs of 'In the The Meadow Bad Soden'

(5) 테라스/옥상

In the Meadow Bad Soden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주택에 형태가 각기 다른 테라스정원이나 옥상정원이 1개 이상씩 있다는 것이다. 주택평면도 17세대가 모두 다르다. 훈데르트바써의 주택작품 중에서 이 주택과 같이 단위세대 수보다 많은 정원이 계획된 경우는 없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주택 전체가 녹색으로 덮여 있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6) 양파돔/구(sphere)

옥상에 이용된 여러 개의 구(sphere)는 이 주택을 성채처럼 보이게 하며, 짙은 푸른색의 대형 양파돔으로 인해서 In the Meadow Bad Soden은 Hundertwasser House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지녀 거주자에게 신분이 높다는 느낌과 함께 풍요로운 기분이 들도록 한다고 판단된다.

3. 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더 포레스트 스파이럴 어브 담스타트)

1) 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의 개요

독일의 Darmstadt Building Association로부터 1995년에 의뢰를 받은 훈데르트바써가 건축한, 105세대를 위한 집합주택으로 2000년 완공되었으며, 건축면적은 8,800 m²,

연면적 30,000 m²이다. 독일의 Darmstadt에 소재하며 105세대 이외에 5 unit이 있는데 상점, 주민센터, 찻집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집합주택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도시주택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훈데르트바써는 부지가 Bürgerpark(공원)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초기의 디자인 컨셉을 '산림 속의 소용돌이(spiral)'로 잡았다고 한다. 현장답사 결과, 그의 초기 컨셉인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주택'이라는 그의 건축철학이 완벽하게 구현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집합주택이다.

2) 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의 외부 디자인 특성

(1) 매스(mass)

현장답사 결과, 자연과 도시가 완벽하게 조화된 이 주택에 갈채를 보내고 싶었으며, 도시에도 이와 같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주택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된다. 부지 남서쪽에서 저층으로⁴²⁾ 시작하여 소용돌이 형태로 남동쪽으로 돌면서 점점 높아져 9층이 되는데, 여기에 41m의 12층 타워를 만들고 그 위에 금색의 공(sphere) 장식물을 올려놓아 소용돌이 매스의 역동성이 강조된 형태⁴³⁾이다<Figure 12>.

Figure 12. Architecture Model of '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

이와 같은 매스에서 인간문명, 우주섭리를 상징하는 소용돌이 형태는 인간에게 친숙한 느낌을 준다는 훈데르트바써의 건축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외벽/파사드(facades)

<Figure 13>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주택의 외벽과 파사드는 대단히 개성적이다. 수백만 년 된 거대한 퇴적층처럼 보이는 것이 집합주택의 외벽이다. 이 외벽은 지구형성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며, 훈데르트바써가 현대의 도시건축물에서 결핍되어 있다고 역설하는 자연의 생명력(vitality)을 느끼게 한다. 이 주택의 외벽이 지닌 독

42) 가장 낮은 옥상정원 아래는 이 집합주택의 입구이며 타워까지 소용돌이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어서 거주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43) 현장에서 공중촬영이 불가능하기도 했지만 이 주택의 매스의 이해하는 데는 모형(출처; Taschen A. (Eds.), 2009 p 264.)이 더 효과적이다.

창성은 자연이 지닌 불규칙성, 다양성으로 인한 아름다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길게 가로로 퍼지는 퇴적층의 곡선이 개성적이고 강하여 처음에는 외관의 구체적 형태가 눈에 잘 안 띈다. 그러나 유심히 관찰하면 외부 벽면이 불규칙하게 원기둥 형태로 돌출되어 있거나 움푹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조화로 인해 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는 인간의 건축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대로가 자연일 것이라는 착각이 드는 집합주택이다.

Figure 13. Partial View of the Facade of '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

(3) 창

소용돌이 형태의 외관과 퇴적층처럼 보이는 가로로 구불거리는 곡선으로 인해서 창에 주목하게 되지는 않으나, 서서히 오랫동안 관찰하면 창에 대한 훈데르트바씨의 건축철학이 그대로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의 규모로 인해서 Hundertwasser House에서 느껴지는 '춤추는 듯한 창', '각기 다름을 자랑하는 창'이라는 느낌보다는 거대한 바위에 수많은 동굴이 여기저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4) 옥상/테라스

현장답사 결과, 이 집합주택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Darmstadt 시의 2차선 도로 한 쪽에 수풀이 우거진 경사진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을 따라가면 오른쪽으로 돌게 되어 있다. 좀 더 올라가면 퇴적층 같은 주택의 외벽, 그리고 창, 테라스 등이 보인다. 아래쪽에 물소리가 나는 작은 숲이 있다(Figure 14)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숲길이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집합주택의 옥상임을 알게 된다.

이 집합주택의 옥상은 '자연과의 관계 맺기'를 건축물에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훈데르트바씨가 제시한 녹지의 의무와 옥상녹화운동의 좋은 사례라고 판단된다.

(5) 양파돔, 구(sphere)

나무가 많은 소용돌이 형태의 매스를 가진 대규모⁴⁴⁾ 건축물의 옥상에는 가장 높은 쪽에 있는 타워 가까이에 금색의 대형 양파돔이 있다. 낮은 옥상이 있는 집합주택의

Figure 14. Beautiful Small Garden of '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

입구에는 소형의 흰색 양파돔이 있다. 이와 같은 양파돔은 건축물은 입주자가 인격이 존중되었다는 느낌과 신분이 상승되는 기분을 갖도록 하는데 상징적인 장식품이 효과적이라는 훈데르트바씨의 건축철학이 반영된 좋은 사례이다.

4.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그린 시타델 어브 마그데부르크)

1)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의 개요

이 건축물은 독일 Magdeburg 시의 중심이며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광장(Magdeburg Cathedral Square) 인근에 위치한 분홍색 주상복합건물로서 대지면적은 5,408 m², 건축면적은 4,385 m²이다. Magdeburg시는 '도시색채(color)'를 선정하는 자문위원인 훈데르트바씨에게 이 프로젝트를 1996년에 의뢰하였다. 이 건축물은 훈데르트바씨가 사망한 후에 완성되었지만 그가 사망한 2000년에 이미 많은 작업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훈데르트바씨의 작품으로 공인되고 있다.

실제로 그의 초기 계획안(Figure 15)⁴⁵⁾이나 모형을 보면, 현재의 건축물과 동일하다. Magdeburg시와 시민들은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 55세대(56-145 m²)

Figure 15. Facade Design of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 by Hundertwasser in 1999

44) 110 unit(부속시설 포함)의 집합주택은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대규모에 속한다.

45) 1999년 훈데르트바씨가 입면도에 수채화로 외벽 디자인을 표현한 것이며 출처는 Taschen A. (Eds.), 2009 p 285이다.

가 거주하는 집합주택은 건축물 한 쪽에 위치한 원통형 건물이며<Figure 16>, 연면적은 5,112 m²이다. 이 건축물에는 집합주택 이외에 오피스, 전시장, 쇼핑센터, 레스토랑, 유치원, 호텔 등이 있으며, 각각 독립적인 출입구와 동선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쉽게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Figure 16. External Appearances of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

2)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의 외부 디자인 특성

(1) 매스(mass)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의 기본 컨셉과 매스를 확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지 옆에 시에서 가장 유서 깊은 광장이 있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도 새 건축물을 독창성 없이 과거를 모방하여 디자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 훈데르트바써의 철학이었다. 현장에서 이 건축물의 매스를 보면, 미래 건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책임을 숙고한 결과라고 평가하게 된다. 즉 유서 깊은 장소에 역사깊은 성당과 미래의 방향이 제시되는 현대건축물이 이웃하여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미래적이며 바람직한 사례로 남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의 매스에서는 훈데르트바써의 건축철학인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기’, ‘다양성, 불규칙성을 지닌 생명력’을 실감할 수 있다.

(2) 외벽/파사드(facade)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의 외벽은 대부분이 분홍색으로, 집합주택인 원통형건물에만 흰색이 일부 사용되었다. 이런 대규모 건축물 전체를 분홍색으로 한다는 것은 훈데르트바써의 고집 없이는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⁴⁶⁾. 현장답사 결과, 외벽 전체에는 바닥에서 건물상부 끝까지 짙은 갈색의 굵은 띠가 경사진 수직방향으로 무수하게 구불거리고 있다. 재료가 세라믹 타일인 짙은 갈색은 가볍게 보일 수도 있는 건축물의 분홍색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세라믹 타일로 된 갈색의 굵은 띠는 오래된 나무처럼 보여 나무가 집을 둘러싸고 있는 느낌을 갖게 한다<Figure 16>. 이와 같은 디자

인으로 훈데르트바써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철학을 구체화시켰다고 판단된다.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의 분홍색 외벽이 주변과 잘 조화될 수 있게 하는 요소는 입주목⁴⁷⁾, 테라스와 옥상의 나무, 산책로에 있는 잔디와 나무의 푸르름이라고 판단된다.

(3) 창

규모가 큰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에는 창이 무수하게 많으나 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처럼 창이 동굴의 입구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훈데르트바써 하우스처럼 이 주택의 창은 입주자의 개별성을 표현해야 한다는 훈데르트바써의 철학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즉, 창의 크기, 형태, 색, 캡스톤 등이 다양하고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4) 기둥(columns)

도로와 면한 쪽의 공간에는 훈데르트바써의 독창성이 표출된 다양한 기둥이 수없이 많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한 기둥들이 마치 사람들을 기다리는 생명체처럼 보인다<Figure 17>. 건물로 둘러싸인 중정, 테라스, 거리 쪽의 기둥들이 사람들을 친근하게 맞아들이는 듯한 모습은, 건축물의 기둥은 자연에 있는 나무와 같은 느낌이어야 한다는 훈데르트바써의 철학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Figure 17. Various Colum Design of a Terrace and Street in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

(5) 테라스/옥상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에는 나무가 많다. 도로에서 오를 수 있는 경사진 산책로가 건축물의 앞과 뒤에 있고 산책로에는 잔디와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고층인 이 건물의 옥상 또는 테라스가 나온다. 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의 산책로가 소용돌이 형태로 돌면서 한 방향으로 계속되는 것과는 달리 이 건축물은 산책로의 입구가 세 군데이며 따라 올라가다 보면 서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6) 양파돔/구(sphere)

현장답사 결과,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의 옥상에는 지금까지 논의한 주택들에 있던 것과 색채와 형태가 차별화되는 양파돔이 이용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

46) 실제로 분홍색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격렬하게 논의했다고 한다 (출처: Centum Aqua Marketing Magdeburg 2007).

47) 거리로 면한 쪽으로 19개의 입주목이 있다.

다. 훈데르트바씨가 다양성, 차별화를 건축철학으로 주장하였지만 여러 주택에 사용된 양파돔의 기본적인 형태는 비슷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건축물에는 4개의 날개를 끼워 만든 하얀색 양파돔⁴⁸⁾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양파돔이 이용되었으며 위에는 금속의 구(sphere)를 얹어 놓았다. 이러한 구는 양파돔 이외에도 나무기둥처럼 올라가는, 짙은 갈색띠의 상부에도 올려져 있다. 이 주택에 차별화되는 양파돔을 사용한 것은 다양성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옥상정원에서 자라는 식물의 서식공간을 보다 많이 제공하려는 훈데르트바씨의 건축철학이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5. 훈데르트바씨의 건축철학과 주택작품 4개의 외부 디자인 특성에 대한 소결

1)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자연으로부터 빼앗은 땅을 자연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건축철학을 지닌 훈데르트바씨는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옥상과 테라스 녹화운동, 입주목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위에서 언급한 주택작품 4개에 이를 모두 실천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Hundertwasser House가 단연 돋보이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테라스를 계단식으로 계획하였기 때문이라는 것과 4개 주택 중에서 가장 오래되어(1986년 완공) 나무들이 자리잡고 자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서 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와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는 건축연도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두개의 주택은 건축물의 규모 자체가 크고 전체적으로 소용돌이 모양이어서 20-30년 이후에는 옥상정원이 Hundertwasser House보다 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지닐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자연이 지닌 아름다움의 근원인 생명력은 불규칙성과 다양성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는 건축철학을 지닌 훈데르트바씨는 4개의 주택작품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특히 입주자의 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창’, 자연에 존재하는 나무와 같은 느낌을 지녀야 한다는 ‘기둥’, 외벽에 사용되는 색채와 띠의 형태를 지닌 외벽 디자인, 지붕의 양파돔 등에서 불규칙성과 다양성을 시도하였다.

Hundertwasser House에서는 세대별로 파사드의 색을 서로 다르게 하고, 나무의 수종까지 달리 하여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했다. In the Meadow Bad Soden에서는 타워의 형태와 구성, 테라스 정원을 각기 다르게 디자인함으로써 불규칙성을 시도하였고, 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에서는 퇴적층을 컨셉으로 도입하여 자연이 지닌 강한 생명력을 주택에 구체화시켰다.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에서는 인근의 역사적 광장, 성당 등과 극대비되는 매스의 형태와 색채, 그리고 뻗어오르는 나무색의 외벽 디자인으로 생명력을 표현하였다고 판단된다.

3) 회색의 도시를 변모시키고 아름다움을 승화시키려면 다양한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에 생명을 부여해야 한다는 훈데르트바씨는 그의 철학을 4개 주택작품에서 각기 다르게 구체화시켰다. Hundertwasser House는 동화같은 세계를 연상시키는 파스텔톤의 다양한 색채의 외벽으로, In the Meadow Bad Soden은 전체 외벽의 색을 통일시킨 상태에서 타워, 기둥의 다양한 색채 그리고 흘러내리는 듯한 띠를 푸른색으로 외벽에 표현하였다. 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는 퇴적층이 연상되는 여러 색들이 가로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색채가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로서 분홍색의 대형 매스가 기존의 도시에 강하게 대비되면서 도시활력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건축물의 창, 양파돔, 기둥 등에는 다른 주택작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색채가 이용되어 활기차게 보인다.

4) 유기체적 곡선과 소용돌이는 운명, 우주섭리를 상징하며 인간에게 친숙한 느낌을 준다는 철학을 지닌 훈데르트바씨의 주택작품 4개에 연속적인 곡선과 소용돌이가 자주 등장한다. Hundertwasser House의 외벽은 곡선으로 세대별 파사드가 구분되어 있으며, In the Meadow Bad Soden에는 흐르는 듯한 푸른색 띠가, 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는 퇴적층처럼 보이는 매스 전체가,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에는 매스 그리고 외벽에 있는 나무기둥처럼 보이는 구불거리는 사선형태의 타일장식이 곡선으로 되어 있다. 또 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와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는 매스 자체가 소용돌이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철저하게 자신의 건축철학을 구체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건축물도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훈데르트바씨의 철학은 Hundertwasser House에서는 창문권으로 표현되었으나 다른 3개의 주택작품에서는 옥상/테라스 정원, 입주목 등으로 구체화시킨 것을 알 수 있다.

6) 입주자가 신분상승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타워, 양파돔, 구, 기둥, 여인상, 사자상 등의 장식물이 효과적이라는 건축철학을 지닌 훈데르트바씨의 4개 주택작품에는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이러한 장식물이 이용되었다. Hundertwasser House에는 거의 모든 장식물이 이용되었으며 In the Meadow Bad Soden에서는 하나의 양파돔과 많은 수의 타워와 기둥이 이용되었다. The Forest Spiral of Darmstadt과 The Green Citadel of Magdeburg에도 많은 기둥들이 신분상승 효과를 느끼도록 이용되어 입주자들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있다.

V. 결론 및 요약

훈데르트바씨의 주택작품 4개를 대상으로, 문헌고찰과 현장답사를 병행함으로써 그의 건축철학이 무엇이며 그것이 외부 디자인에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하

48) 훈데르트바씨는 ‘날개모양의 양파돔은 다른 주택에 사용했던 양파돔에 비해서 식물서식공간을 덜 빼앗는다’고 생각했다.

는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훈데르트바써는 도시에도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작품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노력한 건축가이다. 즉, 자연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의 근원인 생명력, 불규칙성, 다양성을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건축물에 구체화시켜, 인간이 존중되고 아름다운 뿐 아니라 살기에도 적합한 주택작품을 남겼다. 이를 통해서 건축가, 도시계획가, 정치가, 미래의 입주자들이 협력하고 또 노력한다면 도시에도 자연과 공존하는 주거환경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희망적 사고를 갖게 하였다.

자연에 존재하는 유기체적인 곡선, 소용돌이 형태를 주택의 매스, 외벽/파사드 디자인에 이용하고, 다양하고 불규칙한 색채와 형태를 독창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자연이 지닌 아름다움인 연속성으로 구현시킨 주택작품을 남긴 훈데르트바써는 보다 근원적이고 본성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한 건축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훈데르트바써 주택작품의 외부 디자인에 그의 건축철학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분석한 본 연구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고, 또 추구하려는 변화가 감지되는 ecological, environmental friendly design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작용하여 건축가를 자극하고 건축주의 호응을 받아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보다 질 높은 주거환경, 더 나아가서는 파라다이스가 느껴지는 한국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단지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논리를 앞세우고 기능성 중시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서 나타난 획일적이고 삭막한 오늘날의 한국의 주거현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REFERENCES

1. Fürst, A. C. (Eds.). (2002). *Hundertwasser Catalogue (II)*. Vienna: KunstHausWien
2. Fürst, A. C. & Truppe, D. (Eds.). (2008). *Der Unbekannte Hundertwasser/Hundertwasser: The Yet Known*. Vienna: KunstHausWien.
3. Gieryn, T. F. (2002): What buildings do. *Theory and Society*, 31(1), 35-74.
4. Grosz, E. (2001). *Architecture from the outside: essays on virtual and real space*. Cambridge: MIT Press.
5. Harel, J. (2005). Die gerade Linie ist gottlos/The straight line is godless. In Flagge, I., *Friedensreich Hundertwasser* (pp. 141-147). Frankfurt am Main: Deutsches Architektur Museum.
6. Harel, J. (2005). *The exhibition catalog Hundertwasser*. Frankfurt: Deutsches Architektur Museum.
7. Hilgers, M. (2005). Hunderterlei formen, tausenderlei eindrücke/Hundreds of forms, thousands of impressions. In Flagge, I., *Friedensreich Hundertwasser* (pp. 85-91). Frankfurt: Deutsches Architektur Museum.
8. Hundertwasser, F. (1997). For a more human architecture in harmony with nature: *Hundertwasser architecture*. (pp. 68-70). Köln: Taschen.
9. Kähler, G. (2005). Das alles rührt an die Grundgesetze der Baukunst/It all shakes the fundamental laws of architecture. In Flagge, I., *Friedensreich Hundertwasser* (pp. 141-147). Frankfurt: Deutsches Architektur Museum.
10. Kim, D. N. (2004). A study of design characteristics in Casa Battio and Gaudi's philosophy of architectur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5(5), 21-32.
11. Koller, K. H. (1996). *Hundertwasserhaus Wien*. Wien: Museums Betriebs GmbH.
12. Kraftl, P. (2007). Utopia, performativity, and the unhom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5, 120-143.
13. Kraftl, P. (2009). Living in an artwork: the extraordinary geographies of the Hundertwasser-Haus, Vienna, *Cultural Geographies*, 16(1), 111-134.
14. Kraftl, P. (2010). Architectural movements, utopian moments: coherent renderings of the Hundertwasser-haus, Vienna,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92(4), 327-345.
15. Lederer, A. (2005). Sinnlichkeit für alle/ Sensuality for all. In Flagge, I., *Friedensreich Hundertwasser* (pp. 41-52). Frankfurt: Deutsches Architektur Museum.
16. Lötsch, B. (2005). Hundertwasser and the controversy on the beautiful. In Flagge, I., *Friedensreich Hundertwasser* (pp. 113-140). Frankfurt: Deutsches Architektur Museum.
17. Schmied W. (Eds.) (1997). *Hundertwasser architecture: for a more human architecture in Harmony with Nature*. Cologne: Taschen.
18. Schmied W. & Furest, A. (2003). *Hundertwasser: Complete Works*. Collector's Edition. Cologne.: Taschen.
19. Taschen A. (Eds.) (2009). *Hundertwasser Architecture*. Vienna: Taschen
20. Yoo, Y. S. (1996). A Study on the meaning of Hundertwasser's architecture in the modern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8, 3-15.

접수일(2013. 5. 3)
게재확정일자(2013. 6. 11)